

4-1 최지영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바람이 약간 서늘

제목 : 교회

봄

즐거운 주말! 오늘은 교회를 가는 날이다. 교회에 가서 먼저
다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하였다. 언제나 우리반 친구들은
늦는다. 오늘도 내가 등교로 왔다. 둘이 짝지어 춤을 추려하던
아저씨 살짝 걱정스러워 있었다. 그때 나의 같은 반
친구 유진이 왔다. 나는 우리반 반장에게 같은 아파티에
사는 "세영이는 왜 안오?"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유진이
"늦잠자서 못오네," 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알았다고 하며
반으로 왔다. 그다음 지도를 할 때 채원이 왔다. 오늘은
세영이와 선비, 혜원이 오지 않았다. 우리반 친구들이 꼭 다
왔으면 좋겠다. 안정임 선생님께서 "지영아, 다음주에는 꼭 오게
친구들한테 전화해!" 라고 말해주셨다. 그래야겠다. 친구들이
다 안오면 조금 해준다. 그리고 5월은 나의 생일이다.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친구들에게 바나나 스무디를
나눠주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왔다. 내일은 학교에 가는 날이다.
내일은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기도 하다. 내일이 너무 기대
된다. 집에서 영어복제를 한 뒤 내일을 위하여 꼭
쉬었다. 아~ 정말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니 정말
즐겁고 흥미가 있었던 것 같다.
언제나 아자아자 파이팅!